

나주 SRF 갈등 ‘일파만파’…“자녀 등교 거부”

혁신도시 주민들 강경 투쟁 예고…거버넌스 합의안 수용 촉구
민주당 입당 정치 투쟁…갈등 해결 소극적 시의원 소환 운동

나주 고휘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측의 발전소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 요구에 정부·전남도·나주시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파국’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입주민들까지 자녀 등교 거부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적 기준지 여부와 상관없는 가동 중단을 요구하면서 난방공사측에 거버넌스의 잠

정합의안을 조건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 대표들은 1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난방공사와 산업자원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난방공사와 산자부는 기존 회의를 통해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오는 7일 12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조건없이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타결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경우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강경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녀들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해 가장 ‘빛가람 혁신도시 SRF’ 반대 등교 거부를 위한 학부모 모임’을 결성하는 한편,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 등교 거부에 나선다는 입장이었다. 혁신도시에는 초등학교 5곳·중학교 2곳·고등학교 2곳이 있으며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5500여명의 학생이 있다. 학부모들은 정치 투쟁도 예고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대거 입당, 당 정책에도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갈등 해결에 소극적인 나주시의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펼칠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원만한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시험가동과 본가동을 합해 3개월간 진행하자’는 난방공사와 산자부의 요청을 힘들게 받아들였다”면서 “다음 거버넌스 회의에서 최종 타결되지 못하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조건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측과 사업을 철저히 하고 발전소를 폐쇄할 법적 근거 없이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데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측이 맞서면서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언제 해결될 지 미지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북군인 1명 심야 임진강 귀순

북한 군인 1명이 1일 중부전선 임진강에서 우리 군 초병에 의해 발견된 뒤 귀순의사를 표명했다. 임진강 귀순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어제 오후 11시 38분께 열상감시장비(TOD)로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 임진강 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미상 열점을 추적 감시하다가 오후 11시 56분께 1명의 미상 인원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당 지역은 안개가 끼었고, 흐리고 비가 내리는 등 시야가 매우 흐렸다”며 “초병들이 매뉴얼대로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또 “이 미상 인원은 북한 군인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 동기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정은 방사포 시험 사격 참관

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신형 대구경방사포 시험” 軍 “탄도미사일과 유사”

한미, 대북정보 수집력 논란 예상

북한은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한미의 평가와 달리, 전날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한미는 신형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오인한 셈이다. 대북 정보수집 및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주장처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라면 군과 정부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선

불리 판단해 오히려 북한 측에 대남 비난의 빌미까지 제공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날 북한이 발사한 2발은 고도 30km로 250km를 비행했다. 저고도로 발사됐지만, 탄도미사일 고유의 포물선 궤적으로 비행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2발의 비행 특성으로 미뤄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라고 판단해 발표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

사포를 쏘았고 발표를 했지만, 한미는 현재까지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같은 달 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두 달이 지나도록 “분석 중”이라는 답을 반복하며 해당 발사체가 어떤 것인지들 특정하지 않았다.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군은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25일 2발을 발사하자 탐지한 지 13시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신속하게 평가했다. 5월 초 쏜 것에 대해 정확한 기종 발표를 하지 않은 데 대한 회된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지

난달 31일의 2발에 대해서도 첫발을 탐지한 지 3시간 30여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신속히 규정에 발표했다. 군은 이날 현재까지 이 발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는 300mm(KN-09) 또는 유도 장치를 달고 사거리를 연장한 개량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WS-2 다연장 로켓과 유사한 400mm 방사포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300mm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최대 200km로 추정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를 개량해 사거리를 연장했다면 계룡대 이남까지도 방사포 타격권에 포함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가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하늘길 더 넓어졌다

제주항공, 21일부터 中 장자제 등 2개 노선 취항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지고 있다. 한 때 전세기 한 편 띄우는 것조차 버겁던 무안공항이 일본·대만·중국·동남아 등으로 취항하는 노선만 20개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서남권 대표 국제공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비용 항공사 취항으로 항공권 가격이 내려간데다, 장기적으로 면세점이 보다 다양해지고 활성화되면 시간을 들여 인천까지 오가는 불편함도 덜게 되면서 지역민들이 한층 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오는 21일부터 무안공항을 출발, 중국 옌지(延吉)와 장자제(張家界)로 가는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제주항공은 주 2회 옌지(수·토), 장자제(목·일) 구간을 운항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무안공항은 국제선 20개 노선을 취항, ‘서남권의 하늘 관문’으로 도약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8개 노선(정기 6개·부정기 3개)만 취항했던 것에 견줘 12개 노선이 늘어난 것이다. 지역민들은 무안공항을 통해 국내선인 제주 1개 노선 외에 국제선으로 중국·일본·대만·태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

시아·러시아·몽골 등을 오갈 수 있다. 전남도는 더 나아가 급증하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더 많은 여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안공항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저비용항공기(LCC)뿐만 아니라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를 기존 2800m에서 3200m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354억) 중 15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 공항 관계자 및 항공승무원들을 위한 통합 관사(총 사업비 68억) 사업비로 24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경우 ▲여객(2017년 224만5000명→2018년 252만9000명) ▲운항(2017년 1만4824회→2018년 1만7364회) ▲화물(2017년 1만7830 t→2018년 1만8370 t) 등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 말 현재 47만 명이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가 늘었고 이중 국제선 이용객이 38만명을 기록, 167% 증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정원, 북 이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 예의주시”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주장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8월 중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개선 및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F-35 전투기 등 첨단 전력 도입, 한미연합 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고, 북미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 무기체계 개선 활동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은 6월 판문점 회담 직후 유화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기

도 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의 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비난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정은 총 70여척으로 대부분 동해기지에 집중돼 있다”며 “북한이 지난 23일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경우 기존의 잠수함을 개조한 것인지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인지 현재 분석 중이다. 의도적으로 전체적인 모양을 감추고 있어서 추가 단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방사체에 대해서는 “비행거리 250여km, 고도는 30여km로 판단되고, 비행 제원의 특성이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유사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투자자 모심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시골집 원도군 정산면 대지 440㎡ 주택 52㎡ 조용한생활 최적 48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블루베리 500여주 식재 85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6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주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신안군 안좌면 지리리 1055㎡, 576㎡ 바다인접 전원생활적합 평당 85000원
- 서구 쌍촌동 소방도 집 118㎡ 나대지임 투자에도 양호 1억6천2백
- 남구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98㎡ 공실임 1억1500
- 서구 치평동 대청면물 중 1층 264㎡ 현금실임 다용도 가능 은행 1억 교환 22억
- 함평군 월아면 예덕리 대지 235㎡ 조용한 전원생활 적합 2300만원
- 월산동 다구리 대지 188㎡ 주택 177㎡ 방 10실 전세 800 월 150 임대 은행 3천 매도 2억6천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발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상가 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대인동 버스도로 땅 709㎡ 건평 810㎡ 사옥 등 적합 공시지가 13억7천 매도 26억
- 두암동 버스도로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로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기게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 물건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층 주거지 담 4413㎡ 축적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신안군 암태면 부두서 배로 10분 독립집 56233㎡ 독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담양군 대덕면 잠조지 8451㎡ 도로연결 줄을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3억5천 매도 13억
- 광산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용도 투자에도 양호 10억8천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시 30분거리 13억2천
- 영암군 혁신면 영산강집 신 97404㎡ 강경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곡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97I)	광주교육대학교(207I)
모집 / 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19. 9. 6.(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9. 9. 7.(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19. 9.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9. 9. 7.(토) 14:10 (고급반)
모집 기간	2019. 8. 1(목) ~ 9. 7(토)	
수업 기간	2019. 9. 6(금) ~ 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is.kwu.ac.kr	·문 의 : 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장성토지매매!!

- **4층,30평 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 나대지
- **면 적 : 3,646㎡ (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공익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 (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 (평당 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 의 010-3602-3881(주인)